



주요 소식

- 행복청장 취임 1주년 인터뷰
- 행복청,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총력
- 행복도시~대전 더 빠르게, 더 가까이
- 행복청장 기고(호모 루덴스와 도시)



▶ 영상 바로가기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세종의사당·제2집무실 건립 등 속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김형렬 행복청장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
-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남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8월 2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9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행복도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도시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건립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 주도의 신도시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한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명칭만 보면 단순 정부기관 이전이나 청사 건립 등 건설 업무만 하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물론 주택과 교통, 문화 등 업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최근엔 수도를 이전하는 해외 국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란 목표가 반영된 만큼 행복청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 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지속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형렬 행복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맞았다. 중점을 둔 사업은.

행복청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전에 공직과 민간 양쪽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행복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 건설 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바꾸고 도시 기능에 국정운영과 입법 등 국가중추기능을 더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동 일대를 ‘국민을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급하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 성공의 첫 단추로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중심부 약 210만㎡ 공간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위치하는 공간을 국가상징구역으로 이름 짓고 올해 국제공모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로와 상가 등 기반·지원시설도 같이 계획해 국정과 입법을 상징하는 두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와도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행복청은 지난 연말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 중심부를 입법·행정·문화기능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는 ‘열린공간’으로 건설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등 밀착업도 해왔습니다.

행복청 차원에서 기업을 포함한 자족기능 유치성과와 계획은.

행복도시는 주민 입주가 시작된 이래 출근 출산율이 높고 젊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올해 개교할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을 포함한 자족기능을 행복도시에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행복청은 2015년 행복도시 집현동 일원 약 82만㎡를 ‘세종테크밸리’라는 이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BT·ET·IT 및 지식문화산업 중심의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9차례에 걸쳐 세종테크밸리의 산업·복합용지를 공급했고 현재까지 전체 54개 필지 중 50개 필지에 네이버, 바이브컴퍼니와 같은 우수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수도권에 이미 자리잡은 기업들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CEO(최고경영자)를 면담하는 등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발로 뛰는 유치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등 공동캠퍼스 9월 개교 여부가 관심사다.

이미 서울대, 고려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총 7개 대학이 공동캠퍼스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공동캠퍼스가 지향하는 융합교육·연구 및 공유대학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완전히 새로운 캠퍼스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두 번에 걸쳐 발생한 공사중단 사태로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행복청은 입주대학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대처해 목표한 일정대로 공동캠퍼스가 올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조성을 통해 3000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행복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근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백여 개 첨단기업·연구소가 공동캠퍼스와 ‘교육↔연구↔창업·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행복청 모델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진출 사례가 있는가.

현재 인도네시아 외에도 탄자니아, 이집트, 몽골과 수도이전 및 신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 인프라와 행복도시 모델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해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이전 시장은 물론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 분야로 시장을 확장해 ‘K-도시’, ‘K-건설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건설 초기 단계부터 행복청의 컨설팅을 받아왔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해 6월 민관합동 신수도 수주지원 출장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국 발굴과 협력채널 다변화를 위해 주한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기존 국가 외에도 스리랑카,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행복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뽑히고 있다. 비결은.

행복도시에 살거나 방문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심인데도 어린이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 같은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음 세대와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 ‘삶에 대한 철학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모여 현재의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가 최초 계획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은 물론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선도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복청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와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정책은.

지난 1년간은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힘써 왔다면 앞으로는 행복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광역권 상생발전 선도와 실질적 행정수도 청사진 제시 등 균형발전 상징도시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펼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광역상생발전 기반구축,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등에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특히 국회세종 의사당 등 새로 들어서는 국가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후 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종사자 정착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도시를 인구가 많은 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행복도시는 이제 설계도 위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닌 인구 30만이 살아가는 현실 속의 도시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통해 행복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행복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총력,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 세종시, LH, 대학 등 10개 기관 참여, "9월 개교준비 만전" 당부



행복청은 8월 19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서 세종시, LH, 입주대학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입주하여 교사 및 공용시설(도서관·학생식당·기숙사 등)을 함께 이용하며 융합교육 및 연구를 가능케 한 미래형 캠퍼스로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교 전 최종 점검회의인 만큼 개교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LH의 공동캠퍼스 건립공사 공정보고를 시작으로 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및 입주대학의 개교준비상황 및 기숙사 건립현황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회의 이후 공동캠퍼스

현장을 방문한 김 청장은 9월 개교 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대학 등 관계기관은 그간 정기적인 실무TF 운영을 통해 임시 기숙사 운영, 대중교통 확충 및 통학버스 운영, 인근 상가 할인혜택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 논의하여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모두 힘을 합쳐 성공적인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동캠퍼스가 교육과 연구, 산업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도시~대전 더 빠르게, 더 가까이

• 행복청-대전시 국장급 광역도로 협력회의 개최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BRT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회덕IC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행복청은 대전권 신규사업 발굴에 대전시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행정수도권 광역 공동생활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 광역교통 협력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청,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행복도시형 시니어 주택 사업모델 구상 중

•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운영자 : ㈜서울시니어스) 운영사례 벤치마킹

행복청은 행복도시형 시니어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고창에 위치한 우수 운영사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니어주택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창 웰파크 시티’로 서울송도병원에서 설립한 ㈜서울시니어스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고창 웰파크시티’는 전원형 시니어 주택단지로서 단지 내에 시니어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와 함께 시니어 주택 주변에 온천, 골프장, 병원, 휴양림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에게 24시간 응급상황 의료케어 서비스, 가족 단위 레저시설 이용, 식사 자유 선택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시니어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시니어주택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건립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인근의 문화·편의·생활 지원시설 등 거주요건 확충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세대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복청은 추가 사업성을 확보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적합한 행복도시형 시니어주택 사업모델을 준비 중이며, 후보지로 5생활권 일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중에 공모안을 마련하고 올해 또는 내년에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중으로 부지공급 계약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2025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나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고 행복도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행복도시에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수요 맞춤형 시니어 특화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청, ‘땅꺼짐’ 사전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강화

- 5~7월 우기 대비 25개 현장점검 결과, 땅꺼짐 위험 “이상 무(無)”
- 관계 전문가와 함께 기존 도로 외 공원 보행로까지 확대점검 추진

행복청은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로 약해질 수 있는 지반의 ‘땅꺼짐’ 사전 예방을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땅꺼짐(지반침하)은 지반을 지탱하는 토사가 많은 빗물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러한 공간이 지상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행복청은 땅꺼짐 예방 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행복청·공공·LH가 발주한 2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점검을 시행했으며, 현장 주변 도로 및 보행로의 노면 요철, 포트홀,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청은 장마 기간 이후에도 지하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존 지하 안전점검 시설인 도로 하부 하수관로 외 공원 내 보행로 하부 하수관로 등을 점검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점검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위험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전자기펄스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등 측량) 탐사를 활용한 공동(空洞)조사도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강화된 점검 체계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호모 루덴스와 도시

김형렬 행복청장

‘호모 루덴스(Homo Ludens)’란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며, 1938년 네덜란드의 철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를 통해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놀이는 인간의 고유 활동이자 인간 문화의 본질이며, 놀이를 통해 인간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놀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거듭 창조해낸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이 개념은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사회의 각종 현상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크리에이터’란 직종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만의 개성을 토대로 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사람을 일컬으며, 놀이라는 인간 고유의 활동과 온라인 플랫폼 기술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활동의 장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놀이가 하나의 산업이 되는 시대도 열렸습니다. K팝은 노래와 춤이라는 놀이로 세계 무대를 장악했고, ‘오징어 게임’ 같은 K콘텐츠는 국제 무대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K컬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외국의 젊은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 우리의 놀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기꺼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이’와 ‘도시’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놀이하고 즐기고 교류하며, 도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놀이도 창출해냅니다. 즉, 도시는 그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인 셈입니다.

도시의 놀이 공간이 때로는 도시를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빌바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철강 산업의 침체로 1980년대 들어 도시 기능이 쇠퇴하던 차에 지방정부와 구겐하임재단의 협업으로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이 문을 연 후,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신하였습니다. ‘메탈플라워’ 같은 상징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놀이 문화는 도시 재생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은 ‘서울의 브루클린’을 꿈꾸며 쇠락했던 공장 지대를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들어선 수제화 공장들이 2000년대 들어 쇠퇴하면서 버려진 낡은 공장들에 개성 넘치는 예술 작업 공간과 소셜벤처밸리 등이 들어서고 인근 서울숲과 연계되면서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경의선 철길을 공원으로 변신시키고 책거리와 트렌디한 상권을 형성하여 ‘엔트럴파크’라는 애칭이 붙은 경의선 숲길도 빠질 수 없는 놀이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허브 캔은 “도시는 길이와 너비가 아니라, 비전의 크기와 꿈의 높이로 측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요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성공 요소(Critical Success Factor)’ 중 하나로 주목해봅시다.



도심 속 공원

김형렬 행복청장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조경가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가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여론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당시 총 3.41km²에 달하는 도심 속 노른자위 땅에 빌딩 숲을 건설했을 때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원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1859년 발표된 ‘센트럴파크 설명문’에서 옴스테드는 “공원의 주목적은 도시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특권층만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공원을 일반 대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옴스테드의 철학은 센트럴파크가 1876년 완공됨으로써 비로소 현실로 실현된 듯합니다. 현재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도심 속 자연경관을 즐기며 교류하는 공간인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휴식처이자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현대 도시공원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공원이 아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다면 뉴욕의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 150년 전보다 더욱 치열해진 경쟁사회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음하는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센트럴파크가 없는 뉴욕의 풍경은 삭막한 회색빛 도시였을 듯합니다. 매일매일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에게 공원이 주는 유무형의 가치는, 이제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옴스테드의 공원관(公園觀)은 이후 도시공원의 표본이 되어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공원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공공성과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는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며 공원을 조성한 사례로, 대도시에서도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습니다. 주택가 한 블록마다 공원이 있다는 미국 내 대표적 계획도시 중 하나인 ‘어바인’도 자연을 통한 힐링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청이 건설 중인 ‘행복도시 세종’ 또한 ‘도심 속 공원’을 넘어 ‘공원 속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11배 규모(약 38km²)로 도시 면적의 52.6%에 걸쳐 펼쳐진 녹지와 공원들은 시민이 함께 교감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조사에서 주거 환경 만족도 부문 전국 최고를 유지하는 것도 녹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21년 “경제가 발전한 도시일수록 도심 속 녹지 공간이 시민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심 속 공원’을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core value)’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SF 속 상상이 현실로... 행복도시·세종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미래도시 실현 "앞장"

• 행복청·세종시 공동 '스마트도시계획'으로 세계 일류 '모범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응급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같이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이송이 늦어지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같은 문제에 과연 대책은 없을까?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힘을 모아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교통 검진기 및 교통CCTV에서 실시간 수집한 교통량을 기반으로 긴급차량 단말 장치를 인식하여 실시간 교통신호제어를 통해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위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행복청은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치안 및 안전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각종 도시 문제를 '더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시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화하여 교통·여가·환경 등 생활영역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행복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의 미래형 도시모델로서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표준협회의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3단계(성숙)를, 뒤이어 2020년에는 4단계(선도)를 획득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행복도시... 서비스 고도화 및 대상 지역 확대 위해 세종시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행복도시는 도시 구상단계부터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융합·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국내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개방형 운영체제와 오픈 플랫폼을 구축, 수요자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시민이 스마트서비스 등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복청은 현재 세종시와 함께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복 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금년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이 신도심인

행복도시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세종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와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며,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에는 세계 일류 모범 스마트시티로서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미래형 생활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제공으로 달라지는 생활 면면 '미리보기'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행복도시'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하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쁜 아침 맛벌이하는 아빠·엄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앱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교통 수단 및 경로 정보를 전달받아 교통 체증 없이 출근하고, 자녀들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쿨존 안전서비스 등을 이용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등교합니다. 하교 후 스마트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맞춤형 어플로 간편하게 예약하고 AI로봇사서를 통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귀가한 뒤에는 스마트팜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도시 농업 체험과 즐거운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똑똑건강앱 등)를 통해 개인별 건강 및 체력 상태를 측정 및 건강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CCTV 관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혹시 모를 배회나 쓰러짐 등 위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청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스마트 도시계획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탄소중립 지향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도시 데이터 융복합 기반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라면서 "앞으로는 사업 대상을 세종시까지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구와 미래를 생각하는 '행복도시'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조성 '박차'

- 탄소중립 선도 '행복도시'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해 탄소배출 가장 적어
- 에너지·건물·수송 등 분야별 전방위적 탄소중립 실천

올여름 기습 폭우와 폭염, 낙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예년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급 태풍과 다발성 토네이도, 기록적 홍수 등 세계 곳곳이 기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곧 인류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발걸음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한국 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물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구미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7월 26일 성황리에 막이 오른 지구촌 대축제 파리올림픽도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최우선의 가치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감과 탄소중립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전 세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원전·복합·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친환경차 보급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주요 대도시는 물론 안동, 목포와 같은 중소도시들도 잇따라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마련,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목표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는 도시가 있어 주목됩니다. 바로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도시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분야별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에너지·건물·수송 등 분야별 탄소감축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

2021년 7월 행복청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부문별 이행현황 점검·환류 등 체계적인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겨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해답은 지금까지 행복도시가 걸어온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행복도시의 녹지율은 무려 52.8%로 여타 신도시(동탄2 31.4%, 광교 41.7%, 송도 32.4%)들에 비해 10%에서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공원과 녹지, 친수공간의 면적을 50% 이상 확보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설인 LNG 열병합발전소를 도시 남·북측에 각 1개소씩 도입했습니다. 열병합발전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화력발전의 약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는 행복도시 북측 발전소(신세종빛드림 발전소)의 경우 가스터빈에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를 혼소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청정에너지 공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2023년 기준 연 1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나무 약 4천 4백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행복청은 또, 건축물의 탄소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국가 로드맵보다 상향 적용하는 한편,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수소차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해 연간 탄소배출·1인당 탄소배출량 '최저'

국토부의 '탄소공간지도'에 따르면 행복도시시는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2022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탄소배출량(tCO₂)도 가장 적은 4.44로 2위 서울 5.17, 3위 부산 5.78, 최하위 충남 15.21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복청은 에너지·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탄소저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개발 생활권 내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 시민 생활 실천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환류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한 바 있는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204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노력 또한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청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대신 다화용품을 사용하는 등 기본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행복도시, 시민 모두의 교육문화도시로 조성

- 2023년 준공한 '진로교육원' 본격 운영 중
- 2025년 '평생교육원'과 2027년 '과학문화센터' 추가 건설

어린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뜻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고 자기계발할 수 있는 도시 구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해 11월 보람동에 문을 연 진로교육원 외에도 산울동에 건립공사가 한창인 평생교육원, 여기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 중인 합강동의 과학문화센터가 지난 6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본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의 건립을 맡고 있는 것은 2006년부터 행복도시를 건설 중인 행복청으로, 이미 지난해 3월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과 탐색, 상담 등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교육원을 건립해 세종시교육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은 초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 연령층 대상의 취업·재취업 교육기관이며, 과학문화센터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 같은 지역교육시설들은 특히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며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중심 '평생교육원'

지난 4월 말 기준 행복도시의 평균 연령은 35.9세, 세종시까지 범위를 넓혀도 38.8세로 전국 45.0세에 비해 훨씬 젊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도시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장래에 대비한 평생교육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로교육원에 이어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배경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무엇이든 언제나 원활하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산울동의 평생교육원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예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청소년과 성인이 한데 모여 교류하며 연령과 세대의 담을 허무는 '배움과 화합의 광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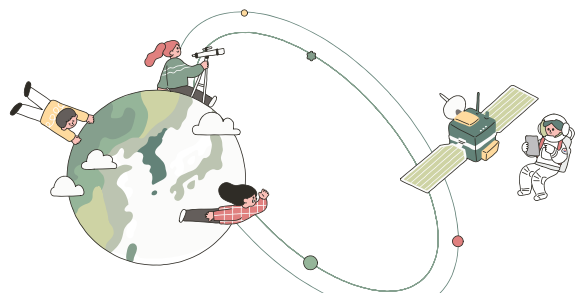


학생·교원·시민이 과학을 주제로 즐기며 소통하는 공간 '과학문화센터'

2027년 합강동에 들어서는 과학문화센터는 '학교 밖 과학교육 제공'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과학문화 공간 구현'을 비전으로 지난달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이번 달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후환경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해법을 수학·과학·공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여 탐색하는 곳으로,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학문화센터는 각종 과학실험 장비와 실험실을 구축해 학생에게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심화 연수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과학공연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의 '과학문화플랫폼'이자 '문화 커뮤니티'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평생교육원과 과학문화센터 등 행복도시 교육지원시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행복도시 주민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행복이와 한글교시(8교시)



1. '올차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기운차다 (O)
- 속이 짝 차고 실속있다 (X)
2. '되려'와 '되레'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화를 냈다. (O)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화를 냈다. (X)

속 제 코 너

알듯말듯 우리 속담 알아보기

- ① 죽사발이 [?] [?]이요
 밥사발이 [?] [?]이라
- ② 길을 떠나려거든 [?] [?]도 빼어
 놓고 가라



* 7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 원수, 은혜
2번 : 달걀

사자성어 배워가기

주 마 가 편

(走) (馬) (加) (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원에는 이색적인 놀이 시설이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비롯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쉼터, 어린이 체험 학습이 가능한 생태 못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원과 가까운 거리에는 원수산 MTB공원, 세종필드GC,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초성힌트

드미프구리공원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다 작성해서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책임있는 AI,
더 안전한 내일

2024. 9. 9.(월) - 10.(화) 대한민국 서울

REAIM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외교부 대한민국 국방부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동주최로 2023년 2월 에이그에서 첫번째 REAIM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4년 9월 서울에서 두번째 REAIM 고위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4. 9. 9.(월) - 10.(화) **장소** 롯데호텔 서울 & 엑스틴 조선 서울

프로그램

- REAIM 본회의: 고위급 기조토의, 소그룹 회의, 영사와의 대화(REAIM Talks)
- REAIM 장관급회의: 고위급 오찬,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 REAIM 부대행사: AI전시회 및 시연회, 청년 행사

제 79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행정안전부

태극기 높이 올리면 “힘찬울림”



대한민국정부 **국민의 힘** **국민의 힘**

2024 슈퍼 K

를 찾아라

2024.7.29.(월) ~ 2024.9.1.(월)

2024 K-정책소통 공모전

정책담당자, 홍보심무자와 한팀이 될 슈퍼-K를 찾습니다.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당신만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상 및 혜택 예나, 총 1,500만원의 상금
및 대상 정책담당자 및 홍보심무자
또 최우수 4팀 선정, 인문위원 선정 및 방송 프로그램 출연 기회

참여 방식 20개의 정책 중 1개의 정책을 선택 후, 영상, 글, 이미지, 제안서 등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총 1000자 이내로 제안
지원 방식 홈페이지 접수(신청서+제안서)
접수 절차 홈페이지 접수 > 접수하기 클릭 > 신청 양식 작성 > 작품 업로드 > 제출 버튼 클릭

|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슈퍼케이.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 본 공모전은 KNN과 KNN STORY와 함께 합니다 |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 아름다운 실내 환경을 26도 준수하기!
- 안스는 재능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  ENERGY SAVING ENERGY CAMPAIG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행복청 SNS 채널

-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sejong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